

재외동포의



2014 | 05

특집 | 대한민국 청소년 30명 미주동포 가정 열흘간 홈스테이

재외동포 사회 2세 등 글로벌 마인드 쑥쑥

지구촌 통신원 | 세월호 참사 동포사회 추모 물결... 모금운동도 벌어

고국의 희생자 애도 '한마음'

화제 | 미리 보는 2014년 제13차 세계한상대회

창조경제 일조하는 동포 거상 부산에 집결



▲ 청소년 공공연수단의 뉴욕 타임스스퀘어 '독도 플래시몹'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대가야시대 철기문화의 정수

판갑옷

1978년 대가야의 왕릉급 무덤인 경상북도 고령 지산동 고분군 32호 무덤에서 금동관, 갑옷, 투구가 출토됐다. 갑옷은 작은 철판들을 이어 만든 비늘갑옷과 긴 철판을 가로 방향으로 이어 붙여 만든 판갑옷이 1점씩 출토됐다.

비늘갑옷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북방 기마 전사들이 주로 입던 것이었다. 초창기 신라와 가야에서는 북방계의 비늘갑옷뿐만 아니라 판갑옷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갑옷도 함께 나타난다. 특히 가야 지방에서 많이 발견되는 판갑옷은 가야 무사의 상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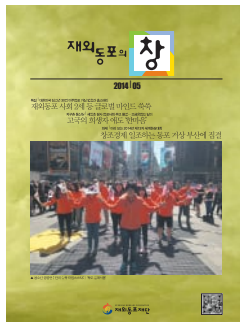
삼국시대 이전 사람들이 입었던 갑옷은 대개 가죽이나 나무 혹은 동물의 뼈 등 유기질로 만든 것이었다. 이런 유기질제 갑옷은 모두 무덤 속에서 썩어버리기 때문에 흔적이 잘 남지 않으며 이 때문에 갑옷의 구조를 알 수 없다. 삼국시대에 들어와 신라와 가야를 중심으로 제철기술이 아주 발달하게 되는데 그 결과 이전 유기질제의 갑옷은 철제로 바뀌게 된다.

판갑옷이 출토된 지산동 32호 무덤의 연대는 함께 출토된 유물로 보아 5세기 중엽 정도로 볼 수 있다. 갑옷은 오른쪽 앞몸통, 왼쪽 앞몸통, 뒷몸통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는데 왼쪽 앞몸통과 뒷몸통은 못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오른쪽 앞몸통만 전체 갑옷에서 분리되는 구조인데 이것은 갑옷을 쉽게 입고 벗기 위한 것이다.

가야에서 발생해 성행한 판갑옷의 제작기법은 이웃 일본으로도 전해졌다. 판갑옷은 가야의 뛰어난 철기 제작기술을 보여주는 것으로 칼, 창 등 철제 무기와 함께 가야 무기의 우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판갑옷과 투구
 ◀경상도 지역에서 출토된 가야 판갑옷



Cove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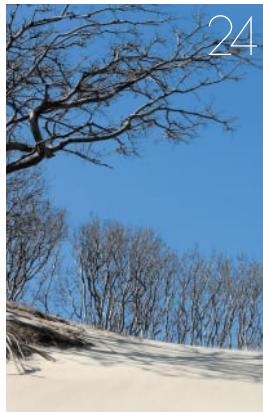
대한민국 청소년 공공외교단은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독도 홍보 청소년 공공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독도 플래시몹' 캠페인을 벌였다.

CONTENTS

재외동포의 창



- 02 한국의 일 판갑옷
- 04 특집 대한민국 청소년 30명 미주동포 가정 열흘간 홈스테이
- 06 동포소식 캐나다 동포들, 북한 난민 추방 막기 서명운동 외
- 10 기획 재외동포 이민사 5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 이민, 브라질 한인사
- 12 화제 미리 보는 2014년 제13차 세계한상대회
- 14 글로벌 코리아 '김치 워리어' 만든 재미 영화인 강영만 감독
영화 '겨울왕국' 주제가 '벋 잇고' 모창대회 입상한 재미동포 그레이스리
무료 법률상담 주드해온 홍경일 호주 한인변호사협회 회장
- 16 지구촌 통신문 세월호 참사 동포사회 추모 물결...모금운동도 벌여
- 17 동포정책 Q&A 재외동포의 예금 등 금융 거래
- 18 한민족 공감 한·호주 정상 FTA 서명식 참석
- 19 동포의 창 싱가포르 젊은이들이 한국어 배우기에 나섰다. 왜?
- 20 OKF 뉴스 미주총연 서울사무국 개소... "한인과 모국 잇겠다" 외
- 22 동포문화 밤을 즐기는 아이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바른 말 고운 말
날말 맞추기
- 24 고향 소식 숲이 가장 아름다운 서해의 보석 굴업도
- 26 재단공지 및 독자후기 201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 모집



2014 05 May

발행인 | 조규형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 · 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사업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한신+FP

▶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국제교류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30명 미주동포 가정 열흘간 홈스테이 재외동포 사회 2세대 등 글로벌 마인드 쑥쑥



재외동포재단은 4월 16일부터 열흘간 국내 청소년이 재외동포 가정에 머물며 재외동포 사회를 이해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공공외교단 연수(OKFriends GoGlobal)'를 시행했다. 재단은 매년 여름에 재외동포 청소년을 국내로 초청해 문화 체험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이번에는 처음으로 국내 청소년을 재외동포 사회로 보냈다.

기존의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 연수사업이 일방적 모국 방문 형식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 청소년과 재외동포 또래 청소년이 서로 오고 가는 글로벌 청소년 교류 사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재단은 지난해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 연수 참가자에게 홈스테이를 제공했던 학생 등 일반 가정 학생들과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등 소외계층 학생들을 고루 선발했다.

청소년 공공외교단 연수 발대식은 17일 오전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조규형 재단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성장과 환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청소년들이 재외동포 사회의 진정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재외동포 청소년과 모국 청소년이 쌍방향으로 교류, 소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홀로코스트 박물관 견학소감

권준구 | 안동 안동고등학교 2학년

영토를 잃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교육과 종교 활동을 통해 그들 고유의 민족관을 확립하고 지켜낼 수 있었다는 점이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다. 나치의 학살이라는 비극적인 역사에도 불구하고 민족관을 온전하게 보존해온 것을 보고 유대교를 비롯한 유대문화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다. 한편, 독일과 유대인이 화해하는 것을 모티브로 한 '일도 비슷한 화해 과정을 거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김지일 | 춘천 성수고등학교 2학년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유대인 민족이 당한 처참한 역사를 보고 왔다. 모두들 너무 피곤해 보였지만 박물관에서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듯했다. 많은 유대인이 처참히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들 가슴이 미어졌다. 많은 한국인이 그곳을 방문해 유대인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선생님의 말씀이 가장 가슴에 와 닿았다.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은 누가 누구의 편이라는 걸 알려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역사, 처참한 죽음 등 유대인의 아픔을 보고 스스로 뭔가 느껴 보라는 것이다."

버겐카운티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참배소감

조윤호 | 춘천 성수고등학교 2학년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를 참배하기 전에 여기저기서 보고 들었던 게 있어 같은 전범이지만 두 나라(일본과 독일)의 전혀 다른 대처를 알고는 있었다. 독일의 사죄가 그들 스스로 자처한 걸로만 알았는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독일이 공식적인 사죄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도 유대인처럼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또 오늘 뉴욕 한국학교에서 강의를 하신 허병렬 선생님(뉴욕한국학교 이사장)의 '내가 움직여야 세상이 움직인다'라는 말씀처럼년부터 조금씩이라도 변화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청소년 글로벌 코리안 인재육성사업

'OK Friends' 대한민국 청소년 공공외교단

출국 전 캠프 및 발대식

시: 2014년 4월16일(수)~17일(목) 장소: 서울올림픽파크텔 주최: 재외동포재단 주관: YMCA 한국YMCA전국

1. 캐나다를 방문한 청소년 공공외교 연수단은 4월 19일 트리올한인회 소속의 한얼한글학교를 방문해 초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2. 대한민국 청소년 공공외교단 연수 발대식

이번 연수에는 국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청소년 30명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15명씩 두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미국 뉴욕과 캐나다 몬트리올을 방문했다.

뉴욕 방문팀은 뉴욕한인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와 상설전시관 건립 캠페인 현황을 듣고 뉴욕 한국 교육원에서 뉴욕 지역 한글학교 현황 및 독도교실 활동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다. 이들은 주 뉴욕 한국 총영사관을 방문해 동해병기 및 독도 관련 홍보 외교에 관해 공부하기도 했다.

맨해튼 코리아타운에 있는 재외동포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한글학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도 한 이들은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참배, 홀로코스트 박물관 견학, UN본부 방문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또한 호스트 패밀리와 함께 피크닉, 베틀시장 등 다양한 생활 체험을 했으며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독도 홍보 청소년 공공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독도 플래시몹'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몬트리올 방문팀 역시 재외동포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총영사관·한인회 방문, 한글학교 자원봉사, 독도 퍼포먼스 등의 활동을 펼치고 한인회의 도움을 받아 재외동포사회 이해와 글로벌 마인드 제고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재외동포가정 홈스테이 체험 소감

배찬혁 | 구미 봉곡중학교 1학년

작년 여름 재외동포 청소년이 우리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다. 이번엔 반대로 뉴욕에 있는 한인 가정에 내가 홈스테이를 경험하러 갔다. 마음이 설레고 신기했다. 작년에 우리 집에 온 두 명의 친구 중 한 명이 한국말을 잘해서 언어 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다. 친구 부모님이 내가 있는 동안 집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놀라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 한인들이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면서 타지에서 살아간다는 점에 뿌듯했다. 뉴욕에서 만난 친구들이 한국에 온다면 우리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도록 할 것이다.

최지원 | 울산 남외중학교 2학년

비록 사는 곳은 다르지만 같은 한인이어서 조금 더 빨리 친해지고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초대 기정이 너무 잘 대접해 줘서 무척 좋은 시간을 보냈고, 그집의 가족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독도 플래시몹 캠페인 소감

박채연 | 전주 덕암고등학교 2학년

이제는 독도를 모르는 외국인이 많은 것 같아서 속상했다. 이번 플래시몹을 본 외국인들이 독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최승원 | 울산 현대고등학교 2학년

우리의 퍼포먼스를 구경하는 사람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실과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람들이 우리의 퍼포먼스를 어떻게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공공외교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캐나다 동포들, 북한 난민 추방 막기 서명운동

온타리오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석동기)와 토론토 한인회(회장 이진수)가 캐나다에 거주하는 북한 난민의 추방을 중단해 달라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두 단체에 따르면 캐나다 전역에 2천여 명을 헤아리던 탈북자는 최근 연방 정부가 한국을 거쳐 캐나다에 들어온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정책을 강화하는 바람에 600여 명이 남은 상태다. 이들은 현재 언제 추방 명령이 떨어질지 몰라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 서명운동 전개하는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장 이진수(가운데) 씨

온타리오 한인교회협의회와 토론토 한인회는 “어떤 경로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했건 아무 대책 없이 탈북자들이 추방당하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방관할 수 없는 일”이라며 스티븐 하퍼 총리와 크리스 알렉산더 연방 이민 장관에게 진정서를 보내기로 했다. 4월 3일 현재 4천 명이 넘는 한인이 진정서에 서명했다고 토론토한인회는 밝혔다.

온타리오 한인교회협의회는 온타리오 주 내 모든 교회에 진정서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토론토 한인회도 병원·식품점·편의점 등에서 한인뿐만 아니라 비한인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진정서에는 100여 년 전 도착한 탈북자들은 성실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았으므로 인도적으로 고려해 이들이 캐나다 시민으로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과 태국을 거쳐 캐나다로 온 탈북민들도 정부가 받아주기를 청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두 단체의 뜻에 공감한 한인 1.5세 연아 마틴(한국명 김연아) 연방 상원의원은 알렉산더 이민장관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단체는 앞으로 정부 고위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인 10만 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두 단체의 뜻에 공감한 한인 1.5세 연아 마틴(한국명 김연아) 연방 상원의원은 알렉산더 이민장관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단체는 앞으로 정부 고위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인 10만 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재일 경상남도도민회의 유별난 고향 사랑 38년

조국과 고향을 떠나 미국에서 사는 동포들의 나무 심기를 통한 고향 사랑이 38년째 이어지고 있다. 경상남도가 고향인 재일 동포들의 이야기다. 재일 경상남도도민회 회원 300여 명은 4월 4일 청령에서 경남도가 마련한 제69회 식목일 행사에 참여했다.



▲ 재일 경상남도도민회의 고향 사랑이 유별나 화제다. 사진은 일본 긴키(近畿) 경남도민회 신년회

재일 경남도민회에서는 일본 아미구치, 도쿄, 가나가와, 긴키, 교토, 효고, 지바, 히로시마, 오카야마 등 9개 지역에서 322명이 참가했다. 재일동포 자녀 가운데 경남에 유학 온 효고 도민회 회원 자녀 5명도 인솔 교사와 함께 참가했다.

재일 경남도민회 회원들이 대거 고향을 방문하고 나무도 심는 이 행사는 올해로 38회째다. 1975년 관동지구 도민회원 33명이 고향 양산을 찾아 민동산에 나무를 심은 것이 시초였다. 이들이 37회에 걸쳐 심은 나무만 소나무, 편백, 배롱나무 등 24만 그루에 이른다.

행사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1세대 재일동포뿐만 아니라 자녀와 손자·손녀 등 3세대까지 끈끈한 고향 사랑 정신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올해 참가자들의 연령을 보면 90세 이상 3명, 80대 31명, 70대 114명 등으로 고령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재일 경남도민회는 그동안 나무 심기뿐만 아니라 경남도 학생기숙사 건립, 사회복지기금, 경남도민 프로축구단 지원, 재해 성금 등으로 15억 원 상당을 기탁하기도 했다.

일본에는 모두 89만3천여 명의 동포가 거주하고 있고 이 가운데 경남 출신이 25%가량을 차지한다. 재일 도민회 회원은 6천900여 명에 이른다. 일본 전역에서 도민회를 조직해 활동하는 도민회는 경남이 유일하다.



미유엔 첫 여성 총학생회장에 한인 2세 김재윤 씨 당선

미국 아이비리그(동부지역 8개 명문대학)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대학(유엔)에 재학 중인 재미동포 2세 김재윤(20) 씨가 이 학교 개교 이래 274년 만에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4월 8일 텍사스주 한인 언론인 뉴스코리아에 따르면 김 씨는 닷새간 치러진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1천806표를 획득해 2014~2015년 학기를 이끌 유엔 총학생회장에 뽑혔다. 김 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성으로 처음이고, 아시아계로도 최초로 회장에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 주 버펄로에서 태어나 6살 때인 2000년 텍사스 주 댈러스로 이주한 김 씨는 앨런 고등학교를 나와 2011년 유엔에 입학해 현재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다. 김 씨는 2학년이던 지난해 27개 소수인종 학생으로 이뤄진 소수자연합위원회 회장을 맡고 문화 간 대화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등 학교에서 백인 주류사회에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앞장서왔다.

2011년 텍사스 주를 대표하는 2명의 고교생 중 1명에 뽑힌 김 씨는 백악관을 방문하고 연방의회를 둘러보는 ‘상원 유스 프로그램’에 참가해 미국 50개 주에서 온 또래 학생 100명과 교분을 쌓고 아이비리그 학생 대표와 미국 대학생 대표로 각각 중국,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등 풍부한 경력을 쌓았다.

2013년 4명의 학생이 교내에서 자살한 사건을 보고 총학생회장에 출마를 결심한 김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지속해서 ‘멘토’를 상주시켜 고민을 상담할 수 있도록 배려할 참”이라며 “커뮤니티 활성화 등으로 재학생 1만 명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여성 첫 총학생회장 김재윤 씨

샌프란시스코 한국전 기념비 내년 건립

미국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브리지(금문교) 근처 국립공원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세워진다. 샌프란시스코 한국전쟁기념재단(www.kwmf.org)은 이 도시의 프리시디오 국립공원에 내년 1월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착공해 7월에 완공키로 하고 모금을 진행 중이라고 4월 8일 밝혔다. 지금까지 민간 모금액(약정 금액 포함)은 약 140만 달러다.

자연 보호와 청소년 교육 진흥 사업을 하는 비영리기관 벡텔 재단(S. D. Bechtel, Jr. Foundation)이 40만 달러를 쾌척했으며 삼성반도체 미국법인이 15만 달러, 석유회사 세브론이 2만5천 달러, 아시아나항공과 토드 앤드 엘리노어 윌 펀드가 각각 2만 달러, 샌프란시스코 민주평통이 1만7천 달러를 기부했다.

고액 개인 기부자로는 미 해병대 병장 출신의 도널드 리드 씨(26만4천 달러), 국군 상병으로 참전했던 김만중 로리스 다이어 인터내셔널 대표(11만3천 달러), 미 해병대 중령 출신인 존 스티븐스 씨(5만7천 달러) 등이 있다. 한국전 참전 용사인 이들은 개인적으로 거액을 기념비 건립을 위해 내놓은 후 재작년부터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각각 재단 재정총무, 부회장,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십사일반식 소액 기부도 꽤 많다.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 등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와 미국인 참전용사들이 수십~수백 달러씩 거둬 재단 측에 전달하는 경우다. 한동안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지난해 9월부터 기부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오찬·만찬 간담회를 통해 이번 사업의 중요성을 미국 사회와 교민 사회에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기부에 동참하려는 이들은 재단 홈페이지(<http://kwmf.org/contact-us/>)에 연락처를 남기거나, 이메일(info@kwmf.org) 또는 사무실 전화(☎+1-415-750-3862)로 접촉하면 된다.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세워진다. 사진은 워싱턴 내셔널몰 내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 기념비



델러스 한인 동포 500명, 추신수 열띤 응원

미국 텍사스 주 델러스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500여 명이 야구장을 찾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의 톱타자 추신수(32)를 열렬히 응원했다. 한인 동포들은 4월 1일 텍사스 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텍사스와 필리델피아 필리스 경기를 관전하고 톱타자 좌익수로 출전한 추신수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큰 목소리로 기를 불어넣었다.

델러스 한인회를 대신해 이날 티켓 판매를 대행한 현지 한인 언론사 뉴스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3월 21일 티켓 판매 기사가 나간 뒤 열흘 만에 우리가 확보한 500장의 표를 다 팔았다”고 밝혔다.

지난겨울 추신수를 영입한 텍사스 구단은 델러스 지역에서 8만5천 명으로 적지 않은 커뮤니티를 형성한 한인들을 야구장에 끌어들이고자 델러스 한인회와 밀접하게 교류해왔다. 텍사스 구단은 올 시즌 이날을 포함해 한 달에 한 번꼴로 51달러(약 5만4천 원)짜리 좌석을 30달러에 할인해 한인들의 단체 응원을 배려하기로 했다.

“동포들이 응원해주면 힘을 낼 것”이라던 추신수는 1회 첫 타석에서 깨끗한 중전 안타로 시즌 첫 안타를 신고하고 화답했다. 텍사스 구단은 4월 15일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홈경기 때 추신수의 등번호 17번이 박힌 티셔츠 1만5천 장을 팬들에게 선착순으로 배포하기도 했다.



▲ 델러스 한인 동포 500명이 텍사스의 톱타자 추신수를 응원하고 있다.

10월은 고려인의 달..이주 150주년 행사 줄이어

올해로 조선인들이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지 150주년을 맞는 가운데 오는 10월 관련 기념행사가 대거 열린다.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10월 9~12일 서울 광화문과 고려인 밀집지역인 경기 안산 ‘땃골’에서 기념행사를 열기로 확정했다.

기념사업 추진위에 따르면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고려인 동포들과 국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국민 참여 한마당’이 열린다. 고려인의 과거·현재·미래를 보여주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지며, 이 자리에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 150명이 초청된다.

10일에는 고려인 이주 150주년 공식 기념식이 거행된다. 기념사업 추진위는 광화문이나 땃골 기념식이 정부 차원의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고려인 이주 역사도 다른 재외동포 이민사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이주사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11~12일에는 고려인 최대 밀집 지역인 안산 단원구 선부2동 땃골에서 국내 고려인 동포들이 대거 참여하는 ‘고려인 페스티벌’이 열린다. 고려인 거주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인 만큼 고려인 동포들이 페스티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다.

국내와 별도로 고려인들이 사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도 기념행사가 열린다. 9월 20~24일 연해주에서는 고려인 축제가 열리며 10월 5~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콘서트와 세미나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밖에도 시베리아 도시인 노보시비르스크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다른 4개 도시에서도 고려인 문화축제와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제13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32개국 62명 참가



▲ 세계한인언론인대회 개회식

전 세계에서 한글로 신문을 발행하는 한인 언론인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와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기 위해 고국에 모였다. 사단법인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이하 세계한언)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공동 개최한 제13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가 4월 14일부터 닷새 동안 열렸다.

세계 32개국 63개 도시의 130개 한인 신문과 방송을 아우르는 글로벌 네트워크 조직 세계한언은 서울시, 세종시, 충남 공주시, 충북 청원군 오송읍, 전북 군산시에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이란 주제를 내걸고 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북미주, 유럽, 아시아, 중남미 등 20개국에서 62명의 언론인이 참가했다.

4월 14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회식은 개회 선언, 개회사, 환영사, 축사, 감사패·공로패 수여, 세계한언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 환영 만찬, 최철 조선대 교수와 테너 안세권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과 환영 만찬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 나익균 군산대 총장, 김종섭 경희대 국제교육원장,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회장, 노영혜 종이문화재단 이사장, 손석우 해외동포채보나기운동협의회 이사장, 박기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단장, 세계한언의 자문위원장인 이상기 아시아기자협회장과 자문위원인 산악인 엄홍길 씨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 제주도에서 열려... 540명 참가



▲ 세계한인무역협회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회식


제주도 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길을 열어주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세계 7대 자연경관인 제주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제16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가 4월 22일부터 사흘간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세계 속의 한민족, 하나 되는 경제권'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대회는 국내 최대 재외동포 경제단체인 월드옥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했다.

개회식은 세월호 여객선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 월드옥타 홍보 영상 상영, 개회사·환영사·축사, 신임지회 임명식, 환영 만찬 등

의 순서로 진행됐다. 식장에는 월드옥타 회원 540명과 외빈, 제주도와 관계기관 인사, 도내 중소기업 참가자를 포함해 7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을 위해 공연 등 일체의 유해를 자제한 가운데 제주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한상들은 1억2천여만 원의 성금을 모아 정성을 보냈다. 애도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도 제주도 내 중소기업 51개사가 월드옥타 네트워크를 타고 세계에 진출할 기회를 얻었다. 수출상담회 결과 상담액은 130여 건에 268만9천773달러로 집계됐다.

월드옥타 차세대 회원과 제주도 청년 기업인 각 40명의 네트워킹도 이번 대회의 값진 성과로 꼽힌다. 청년들은 차세대 글로벌리더스 간담회를 통해 대륙별(미주·중남미·아시아·오세아니아 등)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 이민, 브라질 한인사 의류업계 등 브라질 경제에 상당한 비중

한 인의 브라질 이민 역사는 1962년 12월 18일 부산항을 떠난 네덜란드 선박 치차렌카(Tjitjalenka) 호가 2개월 가까운 긴 항해 끝에 1963년 2월 12일 브라질 산토스항에 도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선박에는 103명의 한인이 타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62년 3월 해외이주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최초의 공식 이민이었다. 1차 이민 이후 1963년부터 1966년까지 5차례에 걸쳐 1천300여 명의 농업 이민자가 브라질 땅을 밟았다.

1971년에는 1천400여 명의 기술 이민자가 브라질로 이주했다.

1972~80년에는 미국 이민을 위해 파라과이와 볼리비아를 경유지로 삼았던 한인들이 브라질로 대거 이주했다.

이 과정에서 1970년 1월 초를 기준으로 이민자들을 '배 타고 온 세대'와 '비행기 타고 온 세대'로 나누기도 한다. 배를 타고 온 이민자 중에는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한국전쟁의 아픈 경험과 고달픈 실형민 생활을 벗어나려고 이민을 택한 것으로 짐작된다.

1980년부터는 연고자 초청 등을 통한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브라질 한인사회는 양적·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상파울루 시내 봉헤치로와 브라스를 중심으로 5만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건실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의류업으로 기반 다진 한인 이민자

1970년대 초반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봉제업에 종사하던 기술자 2천여 명이 브라질에 온 것을 계기로 한인들은 의류업에 적극 진출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들어 한인들이 운영하는 의류업체가 크게 늘어났고, 30여 년이 지난 현재는 한인의 80% 정도가 의류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다.

한인들의 의류업은 브라질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인이 운영하는 의류업체는 중·고가 여성 의류 시장의 50%를 장악하고 있고, 직·간접 고용 인력은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브라질이 세계 6위 경제 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느는 점은 새로운 50년을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브라질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20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브라질 한인들은 이민 역사 반세기 동안 차세대를 훌륭하게 키웠다. 부모 세대가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1.5세와 2세대는 다양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민사를 써가고 있다. 이민 1세대가 의류업으로 기반을 닦았다면 1.5세와 2세대는 다양한 전문 분야로 진출하며 새로운 이민사를 엮어가고 있다. 한국인 특유의 교육열을 이어받은 1.5세와 2세대는 법조계와 의료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데 이어 최근에는 학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브라질 젊은 한인들의 활동은 한민족미래지도자연대(이하 한미연)와 브라질·한국 세계청년회의소(JCI)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미연의 회원은 50여 명이다. 20대부터 40대까지 망라된 회원의 직업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사,



1. 상파울루 시내 한인 밀집 지역인 봉헤치로 2. 1962년 부산항에서 브라질로 떠나는 이민자들 3. 브라질의 젊은 한인들이 결성한 한민족미래지도자연대의 회장 취임식 4. 2013년 2월 상파울루에서 열린 브라질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행사



다국적기업 직원, 사업가,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 다양하다.

이들은 매월 한 차례 정기적인 모임에서 토론을 거쳐 활동 내용을 정한다. 동포들의 행사를 돕는 일부터 시작해 한국문화 홍보, 무료 한국어 강좌, 2세들을 위한 진로 상담 등이 이들의 몫이다. 브라질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도 빼놓지 않는다.

브라질 국민이 한류의 매력에 빠져들면서 한인들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한국 드라마 ‘대장금’, K-Pop 등으로 시작된 한류의 인기가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만나면서 폭발했다. 한류의 인기는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지 대학에 한국어 전공 과정이 생기는가 하면 한글을 배우려고 한국교육원을 찾는 브라질인이 갈수록 늘고 있다.

상파울루 주립대는 지난해부터 인문대학 동양어학부에 한국어 전공 과정을 개설했다. 2만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인문대학은 동양어학부를 포함해 9개로 이뤄져 있다. 한국어 전공 과정의 정원은 15명이고 언어, 문학, 문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강의가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23일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에서 한국문화원이 공식 개원했다. 문화원은 상파울루 시내 한인 동포 밀집지역인 봉헤치로에서 멀지 않은 산타 세실리아 지역에 있다. 상파울루 한국문화원은 1979년 도쿄와 뉴욕에 문화원을 처음 설치한 이래 26번째 문을 연 해외 한국문화원이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다.

한국문화원은 지상 2층 건물에 1천670㎡ 규모로 건립됐다. 태권도실, 전시실, 도서관, 세종학당, 요리 실습실, 다목적홀 등을 갖추고 있다. 문화원은 한국의 역사, 음식, 음악, 춤 등 문화 전반을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齣



미리 보는 2014년 제13차 세계한상대회 창조경제 일조하는 동포 거상 부산에 집결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한마당인 제13차 세계한상(韓商)대회가 9월 24일부터 26일 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 등이 주관하는 세계한상대회는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한민족 비즈니스의 장이다. 올해 대회는 40여 개국 동포 등 3천여 명이 참가하는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운영위원회, 리딩 CEO 포럼, 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 등 회의와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 기업 전시회,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한상 비즈니스 서밋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리딩 한상 네트워킹을 비롯한 교류 행사도 곁들여진다.

기업 전시회에서는 한상대회에 참가한 동포 기업인과 부산 지역 내 기업 등이 450개 부스를 차려 사전에 선정한 우수 제품을 중심으로 상품을 선보인다. 대회 운영위원회는 바이어 상담회 등으로 참관을 유도하기로 했다.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은 국내 기업 가운데 사전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동포 기업인과 맞춤형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국내 참가자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해외 한상을 우선적으로 초청하기로 했다.

리딩 한상 네트워킹은 운영위원, 리딩 CEO, 영 비즈니스 리더 등 한상과 부산 지역의 청년사업가가 교류하는 프로그램. 참가자 간 네트워킹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맺도록 지원한다.

부산시는 의류, 금융, 관광, 광물산업, IT, 한식 등 업종별·지역별로 만남의 장을 마련해 실질적인 정보 교류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로 했다.

재외동포재단은 4월 30일 경상북도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한인 경제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대회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세계한상대회의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대회 운영 계획을 논의한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김우재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한창우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회장, 문대동 미국 삼문그룹 회장, 권병하 말레이시아 헤니컨코퍼레이션 회장 등 동포사회의 대표적인 한상 24명이 참석했다.



제24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

2014. 4. 30(수) 경주 일튼호텔 B1 체리룸



1.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가 올해 대회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제12차 세계한상대회 2. 제24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 참석자들 3. 제13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으로 선출된 박종범 오스트리아 영산그룹 회장

대회장으로 박종범 오스트리아 영산그룹 회장 선출

운영위원회는 '제13차 세계한상대회'의 대회장으로 박종범 오스트리아 영산그룹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박 회장은 기아자동차 오스트리아 법인장을 거쳐 무역회사인 영산한델스를 설립하며 독립, 연매출 1조 원을 올리는 그룹을 일궈낸 거상이다. 그는 "동포사회와 고국의 동반 성장에 힘써온 한상대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며 "더 많은 한상의 참여를 유도하고 세밀한 준비를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와 네트워킹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내년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단독 신청한 경주시에 대한 장소 선정은 유보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마감을 앞두고 단독 신청한 경주시에 올해 말 원공


목표로 국제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짓는 등 개최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세부적인 여건을 검토해 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9월 열릴 운영위에서 최종 확정을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리딩 CEO 포럼에서는 '글로벌 경기 동향과 국내외 투자 전망'을 주제로 재외동포의 모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방안을 논의했다. 동포 경제인 이외에 한국거래소(KRX) 관계자와 국내 투자 전문가 등도 참가해 국내 상장 가이드와 성공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올해 세계한상대회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대회에 맞춰 열리는 '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에 참가할 신규 참가자 50명을 모집한다.

포럼은 세계 각국 주류사회에 진출해 활동하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경제인의 교류를 위한 자리다. 참가자들은 한상대회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게 된다.

지난 제12차 세계한상대회는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지방 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진출의 계기를 만들었고,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상과 국내 경제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세계한상대회 역시 명실 상부한 재외 한인 경제인들의 최대 비즈니스 장이자 네트워킹의 산실로서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찾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상 네트워크의 힘을 과시하게 될 것이다. 

‘김치위리어’ 만든 재미 영화인 강영만 감독 LA 웹시리즈 축제 3관왕 수상

세계 최대 웹시리즈 축제인 ‘미국 LA웹시리즈 페스티벌(LAWEBFEST)’에서 재미 영화인인 강영만(48) 감독의 ‘김치 위리어(Kimchi Warrior)’가 페스티벌 첫 출품과 함께 3관왕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김치 위리어’는 행사 폐막 전날인 3월 29일 열린 시상식에서 페스티벌 작품상에 해당하는 ‘뛰어난 동영상 시리즈’ 물로 선정됐다. 강 감독은 이 상 외에도 LAWEBFEST 촬영상에 해당하는 ‘베스트 시네마토그래피(레이아웃)’상과 음악상인 ‘베스트 스코어’ 상도 받아 3관왕을 차지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LAWEBFEST에 한국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공식 초청된 강 감독은 첫 출전에 무더기 상을 받는 겹경사를 맞게 됐다. 웹시리즈는 3~6분 정도로 구성된 만화 동영상물로, 강 감독은 이번 페스티벌에 총 15편으로 구성된 ‘김치 위리어’ 시리즈 중 4편과 6편을 출품했다. 두 작품은 각각 용기로 만든 로봇을 탄 주인공이 김치의 효능을 이용해 말라리아와 돼지 독감과의 전쟁을 벌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치 위리어’를 만든 강영만 감독이 상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강 감독은 “그동안 전통적인 영화 방식으

로 작업하다가 웹시리즈라는 새로운 장르를 경험하기 위해 LAWEBFEST에 작품을 내게 됐다”며 “내년부터는 한국에서도 많은 웹시리즈 작품들이 나와 LAWEBFEST 같은 축제에 다수의 작품을 출품했으면 한다”고 바랐다.

강 감독은 그간 ‘김치 위리어’ 외에 극영화 ‘큐피드의 실수’와 ‘비누 아가씨’로 국내에 이름을 알려왔다. 그는 작년 5월 아이티 고아 소녀들의 성장담을 기록한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아이티 거리의 아이들(Innocence Abandoned: Street Kids of Haiti)’로 모나코 자선영화제에서 수상한 바 있다.

2010년 처음 시작한 LA웹시리즈 페스티벌은 해를 거듭할수록 초청작이 늘어나 대표적인 국제 웹시리즈 축제로 각광받고 있다.

영화 ‘겨울왕국’ 주제가 ‘렛 잇 고’ 모창대회 입상한 재미동포 그레이스리 “전문 장비 없이 원곡보다 더 뛰어난 열창” 찬사

재미동포 여대생이 ‘겨울왕국’의 주제가 ‘렛 잇 고(Let It Go)’ 모창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렛 잇 고’로 또 한 명의 스타가 된 화제의 주인공은 뉴저지 럿거스대 약학과 4학년인 그레이스 리(한국명 이경은·22). 지난겨울 전 세계에 개봉된 ‘겨울왕국’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가운데 역대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으며, 이디나 멘젤이 부른 ‘렛 잇 고’ 역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레이스 리는 4월 11일 미국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칸 아이돌’의 진행자로 잘 알려진 라이언 시크레스트가 운영하는 웹사이트(www.ryanseacrest.com)의 ‘렛 잇 고’ 커버 영상 온라인 투표 결승에서 당당히 3위에 올랐다. 이



▲ '렛 잇 고' 모창으로 스타덤 오른 재외동포 여대생 그레이스 리

번 대회는 지난 3월부터 전 세계에서 '렛 잇 고' 모창을 가장 잘한 25명을 선발해 라운드마다 5명씩 떨어뜨리는 이른바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레이스 리는 “공부하면서 틈틈이 취미로 노래를 불러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는데, 모창 콘테스트 3위 입상까지 이어질 줄 몰랐다”며 “제 노래를 듣고 지지해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의 '렛 잇 고' 모창은 음반 녹음실이 아닌 자신의 방에서 만들었다. 전문 장비는 부모님이 사준 마이크가 유일했다. 유튜브 조회수 530만을 넘어선 그레이스 리의 동영상 댓글에는 “원곡보다 더 뛰어난 열창이다”, “전문 장비 없이 목소리만으로 다른 경쟁자를 압도했다” 등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그레이스 리는 이번 대회 전에도 지난 1월 말 'vh1.com'이라는 미국의 음악 전문 웹사이트에서 '렛 잇 고'를 불러 베스트 랭킹 1위에 뽑혔으며, 3월에는 미국 3대 지상파방송 ABC의 간판 프로그램인 '굿모닝 아메리카'에 유튜브 스타로 초청받아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에서 '렛 잇 고'를 열창하기도 했다.

무료 법률상담 주도해온 홍경일 호주 한인변호사협회 회장 “불이익 당하는 한인들 없어야죠”

“호주 법체계를 몰라서, 또 영어가 서툴러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인이 적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 저희처럼 뜻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상황은 조금씩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3년째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이하 워홀러)를 비롯한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주도하고 있는 홍경일(33) 호주 한인 변호사협회 회장은 최근 호주에서 워홀러가 처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매년 3만 명이 넘는 워홀러가 호주를 찾고 있지만 악덕 업주들에 의한 임금 및 노동착취, 취업 사기, 이른바 '닭장 세어'라 불리는 불법 임대차 관행 등에 시달리며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회장은 뜻이 통하는 몇몇 변호사와 의기투합해 2011년 8월 워홀러 등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장소는 시드니 주재 한국총영사관이 제공했다. 홍 회장은 “한인들이 영어에 서툴고 호주 법체계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이 안타까워 법률상담을 시작하게 됐지만 지금은 워홀러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홍 회장은 호주 내에서 한국 워홀러들의 각종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과 관련, “워홀 비자 발급 때 한인변호사협회가 작성한 주의사항을 호주 정부가 PDF 파일 형태로 자동 발급하는 등의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 호주서 3년째 무료 법률상담을 해온 홍경일 변호사



▲ 브라질 한인회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추모 분향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받았다.
◀ 미국 로스앤젤레스 교민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세월호 참사 동포사회 추모 물결... 모금운동도 벌여 고국의 희생자 애도 '한마음'

연합뉴스 | 특파원 공동

여 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국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촛불이 전국에서 타오르는 가운데 사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작은 불꽃은 전 세계 동포들의 손에 들린 초애도 옮겨붙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교민 100여 명은 4월 26일 한국 총영사관 인근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준비해온 촛불을 들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 생환을 빌었다. 하버드대·매사추세츠공과대(MIT)·보스턴대 등 주요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들은 4월 18일과 19일에 촛불집회를 열어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기원했다.

캐나다 밴쿠버 교민들은 4월 26일 코퀴틀람 시 성피터마 성당에서 촛불 기도회 및 성금 모금 행사를 열었다. 기도회에는 한인 출신 연방 상원의원인 연아마틴 의원이 캐나다 연방정부 대표로 참석, 스티븐 하퍼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는 4월 22일 크라이스트처치 시 푸초센터에서 한인 시니어사랑방 회원 100여 명과 함께 실종자 생환을 기원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전 세계 동포들의 성금 모금 행사도 줄을 잇고 있다.

미국 댈러스 한인회는 현지 동포 언론사인 뉴스코리아와 손잡고 약 8만15천 명에 달하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4월 28일에는 한인회 사무실에 임시 분향소를 설치해 5월 2일까지 추모객을 맞았다.


브라질 한인회도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 모금 운동에는 한인회를 비롯해 한-브라질 교육협회, 민주평통브라질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한인회는 4월 25일 건물 안에 분향소를 차리고 매일 오전 8시

부터 오후 5시까지 추모객을 받고 있다. 재중동포단체 대표들은 4월 25일 라오닝성 선양(瀋陽) 한국상회에 마련된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하고 동포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모금과 분향소 방문에는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라오닝성조선족애심기금회, 라오닝성조선족기업가협회, 라오닝성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가 동참했다.

선양 한국상회가 4월 23일 설치한 현지 분향소에는 우리 동포와 유학생, 기업 관계자들 이외에도 재중동포 학생과 단체 회원들의 자발적인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한인회는 4월 25일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유가족을 돕기 위한 성금을 5월 17일까지 모금한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동포안내문에서 "유가족과 아픔을 함께하고 실종자들의 무사생환 기적을 기다리는 간절한 비함을 모아 성금을 모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한인회도 4월 24일 성금 모금 방침을 밝히고 5월 15일까지 성금을 모으기로 했다.

세계 각국에서 제주를 찾은 세계 한상(韓商)들도 실종자들의 가족과 유족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성금을 모았다. 4월 22일부터 사흘간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6차 세계한인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에 참가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소속 회원은 행사 기간에 1억2천79만5천900원을 모아 전달했다.

한편 재외동포재단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세계 각국 동포들이 애도의 뜻을 표하며 성금 기부 의사를 밝혀오며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했다. 재단은 이날부터 동포들의 성금을 외화(신한은행 180-006-439552)와 원화(신한은행 140-010-499253)로 구분, 접수해 매월 초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의 예금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 후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 부여



◀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외 화의 반출과 반입에 대한 국내의 외국환거래법은 그 규제 대상을 국적과는 별개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국제기구 근무자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해 거주자로 하고 있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입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 등을 제외하고는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국내에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해 비거주자로 하고 있다.

외화 반입과 관련해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내국통화, 외국통화 등을 휴대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화 반출과 관련해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반입할 때 신고 절차를 준수한 외화 범위 이내에서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거쳐 반출할 수 있다.

재외동포는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임대보증금, 은행 예금, 증권매각대금 등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 부동산 처분대금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재산 반출 신청서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부동산 처분대금을 제외한 국내 재산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지급 누계 금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재외동포 재산 반출 신청서에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국내 재산에 대한 자금 출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비거주 재외동포는 외국환은행과 원화 또는 외화로 예금거래 또는 신탁거래를 할 수 있다. 외화예금은 외국에서 송금된 외화나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외화를 예치할 수 있으며, 예치된 자금은 외화 또는 원화로 인출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신탁은 외국환은행과 외화신탁, 원화신탁 모두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허용되고 있다.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금융거래의 경우 실명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계속거래에는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재외국민 등 해외 체류자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점포를 이용할 때도 실명확인을 하고 있고 재외국민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영사가 본인의 실명을 확인한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에 의해 실명확인을 한다.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외동포법상의 금융거래 특례

Q 미국의 영주권자이다. 재외동포법의 제정으로 본인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휴대해 들어오거나 국내에 송금한 지급수단을 해외로 반출하는 데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

A 과거 재외동포는 금융거래를 할 때 비거주자로 분류돼 이자가 고율인 장기예금·신탁예금 등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재외동포법은 국내 금융질서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외동포도 예금·적금의 가입이나 입·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의 이용에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했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하고, 외국의 단기투기자금(Hot Money)을 규제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이 제한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



▲ FTA 서명식 후 악수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토니 애벗 호주 총리

한·호주 정상 FTA 서명식 참석 거대 교역시장 탄생

박근혜 대통령은 4월 8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주요 정치, 경제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정상은 이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날 서명된 FTA는 현 정부 들어서 처음 타결된 FTA이자 우리나라가 체결한 11번째 FTA이다. 이로써 우리는 총 48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이들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 세계 GDP의 57.3%에 달한다.

박 대통령은 서명식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의 관세 대부분이 3년 내에 철폐되기 때문에 수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10년간 양국 모두 200억 달러 이상의 GDP가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 문제가 ‘역의 가공지역 조항’을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애벗 총리와 저는 과감한 규제 철폐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양국의 정책기조가 공통점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애벗 총리는 “양국이 오늘 서명한 FTA는 양국 관계에서 역사적 순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한·호주 FTA는 박근혜 정부에서 첫 FTA일 뿐만 아니라 저희 내각에서도 첫 FTA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협정은 호주가 한국의 식량안보, 자원안보, 에너지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박근혜 대통령과 토니 애벗 호주 총리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동차·가전 등 수출에 날개

한·호주 FTA 공식 서명은 양국이 2006년 12월 FTA 공동 연구에 합의하며 첫발을 뗀 이래 7년 4개월 만이다. 세계 12대 경제대국인 호주는 작년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303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7만 달러의 탄탄한 내수시장을 보유해 교역 확대 잠재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 석유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원자재,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는 상호보완적 교역 구조로 가장 이상적인 FTA 파트너라는 평가도 나온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번 FTA의 최대 수혜품목은 전체 수출의 20.5%를 차지하는 자동차다.

가솔린 중형차(1500~3000cc)와 가솔린 소형차(1000~1500cc) 등 우리 주력품목 관세(5%)가 즉시 철폐돼 수출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자동차 부품, 가전,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비중 있는 수출품들이 대부분 관세 즉시 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호주 FTA 발효로 앞으로 10년간 GDP가 0.14%(약 200억 달러), 소비자 후생 수준이 16억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 3월 8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 음식&문화 카니발'에서 참가한 사람들이 한국 떡볶이를 시식하고 있다.



▲ 4월 19일 열린 '뷰티풀 마인드 채리티' 콘서트에 참여한 한국 장애인 청소년 연주자들의 공연

싱가포르 젊은이들이 한국어 배우기에 나섰다. 왜?

채혜미 | 싱가포르 재외동포의 창 통신원

최 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한류의 다양성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예전보다 많아졌다. 그동안 현지인들의 인방을 사로잡았던 드라마 한류를 비롯해 케이 팝(K-Pop) 그룹들의 공연표를 구하기 위해 새벽잠을 설치고 줄을 섰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한국어 학원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열풍의 이유는 한국가요를 앵무새처럼 외워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며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것이다. 또한 대사의 뜻과 의미를 직접 이해하면서 드라마에 몰입하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더해서 드라마 속 한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비빔밥을 주 메뉴로 해외 프랜차이즈를 거느린 한국 브랜드의 식품회사에서는 최근에 싱가포르의 현지 직장인을 위한 한식 요리 교실에서 비빔밥과 잡채 만드는 방법을 강습했는데 '한식=건강식'이라는 등식이 인식되어 현지인들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동남아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과연 현지의 전문가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

주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의 윤재웅 문화홍보관은 "케이팝과 드라마의 일방적 보급에서 이제는 쌍방 소통이 가능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해야 한다"며 "그래서 다양한 한국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케이푸드 페스티벌(K-Food Festival)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현지인 스타 발굴을 위한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K-Pop World Festival)"과 한국어 퀴즈 대회인 '퀴즈 온 코리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문화예술행사와 자선행사의 결

합을 통해 현지사회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교류가 아닐까? 이런 활동의 정착화를 위해 '싱가포르 한국문화원' 건립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제 한류를 통한 문화교류는 '케이팝'과 '드라마'의 확산을 넘어 한인인과 현지인이 함께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자선행사의 결합을 통해 싱가포르와 한국 양국 간의 '공공외교'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난 4월 19일에 싱가포르를 방문한 '뷰티풀 마인드 채리티'(Beautiful Mind Charity)에 소속된 한국의 장애인 청소년들은 현지 장애인들과 함께 감동의 무대였던 '뷰티풀 콘서트'를 열었다. 이 음악회를 통해서 자선기금을 마련, 싱가포르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단체 4곳에 수익금을 전액 기증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또한 싱가포르 현지 장애인들에게 음악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 'BMC 뮤직 아카데미' 지부가 현지에 정착되면서 10여 명의 음악 전공자 교민이 현지인 장애인 청소년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있다.

이들은 매월 현지 양로원을 비롯한 복지기관을 방문해 소외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멜로디와 더불어 사랑을 전하고 있다.

문화예술과 자선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여주는 '공공외교'의 패러다임은 차세대의 미래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자동차와 핸드폰을 잘 만들어 갑자기 국민소득이 높아진 나라라는 인식에서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따뜻한 가슴으로 어려운 이웃을 품는 인정 있는 나라, 매력과 열정을 지닌 나라 대한민국으로 국제사회에 재인식될 것을 기대해본다. **췌**

미주총연 서울사무국 개소…“한인과 모국 잇겠다”

재외미주한인회총연합회(총회장 이정순)가 미주 한인파 고국을 잇는 창구인 서울사무국을 열었다. 미주총연은 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반도미래재단 사무실에서 이 총회장, 원유철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사무국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총회장은 개소식에서 “모국을 향한 미주 한인 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한국 지자체, 민간단체, 기업들과 미국 각 지역 한인사회를 연결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며 “또 미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중군위안부, 독도 등 정부가 나서기 힘든 민감한 사안에 대해 모국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무국은 한반도미래재단 안에 마련되며 연락은 이메일(koreanfedus@gmail.com)로 하면 된다.



▲ 4월 27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반도미래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왼쪽부터),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남문기 미주총연 명예 총회장, 이정순 미주총연 회장, 구천서 한반도 미래재단 이사장,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 거주 고려인 실태조사 나섰다

정부가 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맞아 국내 고려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러시아·CIS 지역과 사할린 지역에 거주하다 국내로 귀환한 고려인 동포의 현황과 함께 생활 실태, 애로 사항 등을 파악해 고려인 관련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재외동포재단은 4월 2일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 실태조사’를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2012년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고려인 사회와 극동 러시아 지역 한인 사회, 2009년 CIS 지역 동포사회·한글학교의 현황을 조사한 바 있으나 국내로 귀환한 고려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영주거국 사업의 대상으로 ‘제2의 이산’을 겪는 사할린 동포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10년 가까이 표류 중인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 통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안산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전국 20여 개 고려인 동포 집중 거주지 현장조사와 함께 고려인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외국의 모국 귀환 동포 처우 사례를 수집하는 자료조사 등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통일교육원과 MOU “재외동포 네트워크 활용 통일지지 확산”

재외동포재단과 통일교육원(원장 김미량)은 10일 오전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통일지지 기반 확산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재외동포재단 초청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통일관련 강의와 통일체험연수를 실시하고, 현지 동포사회 내 통일교육 관련 자료를 지원하는 등 재외동포 통일교육을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네트워크와 콘텐츠를 활용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규형 이사장은 “최근 한반도 통일시대를 향한 통일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재외동포재단은 통일교육을 통한 재외동포 민족 정체성 함양과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재외공관장 초청 오찬서 '맞춤형 동포 지원' 논의

재외동포재단은 4월 3일 오전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 중인 대사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한 대사들은 한인회관 건립, 재외공관과 한인회와의 협조체제 구축, 차세대 육성 방안 등 지역별로 다



▲ 재외동포재단은 4월 3일 재외공관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맞춤형 동포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른 환경과 현안을 가진 동포사회의 맞춤형 지원에 대해 다양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이사장은 동해병기법안에 버지니아 주지사가 최종 서명한 것과 관련, "이는 미국 내 한인 정치력이 크게 신장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참석한 대사들에게 "각국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 노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참가자 대표로 안호영 주미대사는 "앞으로도 재외공관장들도 재외동포의 자산적 가치와 중요성을 늘 인식하며,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재단과의 긴밀한 협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재외동포재단 대학생 UCC 공모전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한민족공동체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4 재외동포재단 대학생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국내외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동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품작은 '내가 만난 재외동포', '재외동포사회 이모저모', '재외동포 이해 제고 방안', '한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 '재외동포재단과 나' 등 5개 주제와 관련된 1분 이상 3분 이내 영상이다. 최대 3인의 그룹이나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1인(팀)당 두 개의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오는 9월 선정·발표되는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6편에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상장 및 각 200만 원, 150만 원, 7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넷(www.korean.net)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담당자(☎02-3415-0094)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공미디어와 MOU "재외한글학교 콘텐츠 협력"

재외동포재단과 (주)시공미디어(대표이사 박기석)는 4월 15일 오후 3시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재외동포 교육지원을 위한 콘텐츠 활용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단의 한글학교 네트워크와 (주)시공미디어의 교육용 콘텐츠를 상호 활용하여 전 세계 1천900여 개 재외한글학교에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재단은 (주)시공미디어가 제작한 교육콘텐츠 '이이스크림(i-Scream)'을 재외 한글학교 교사들이 재외동포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재외동포 차세대의 민족 정체성 유지를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형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외 한글학교 교사들의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다양한 한글교육 교수 활동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었다"며 "재단은 앞으로 재외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밤을 줍는 아이

최장오 | 인도네시아 | 2013 동포문학상 시부문 가작

발목에 잠기는 이슬이 몸을 움츠린다
어느새 검정 고무신에서 물 찌걱 소리가 들린다
차가워진 계절 이슬방울은 총명하지가 않다
지나온 발자국마다 깊은 도랑이 패인다.

밤송이 옆 구절초 하얀 냄새가 향기롭다
밤새 시름하다 아침별에 몸 말리는
네 모습이 안쓰럽다.

바가지 가득 넘치는 영근 밤들만큼이나
헐렁해진 반바지도 다 젖어 들었다
뒤로 난 신작로엔
벌써 아이들 재잘대는 소리 들린다.

굵고 토실한 알밤을
장독대 한 구석 몽실한 향아리에
후드득 쏟아 넣는다
발치 옆으로 매초롬한 모과나무 이파리
단풍 되어 떨어진다.

고개 들어 모과나무 높은 하늘을 바라본다
맑은 햇살에 눈이 부시다
모과 색 닮은 이슬방울 하나
이마에 부서진다.

부엌에서 학교 늦겠다 는 어머니 소리 들린다
서둘러 내뺀 과중시계 바늘이 시야를 가른다.

마루엔 된장국 냄새가 구수하다.

바른 말 고운 말

내리~차~

우리말 표현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차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뒷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수는 있어도 아랫사람이 뒷사람을 사랑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뜻으로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나타낼 때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손윗사람의 손아랫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고, '차사랑'이라는 말은 손윗사람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내리사랑'과 '차사랑'이라는 말에 있는 '내리~'와 '차~'는 모두 접두사입니다. '내리~'는 동사나 명사 앞에 붙어서 '위에서 아래로'의 뜻을 나타내며 '내리누르다, 내리닫이, 내리쓰기, 내리치다'와 같은 단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차~'는 위로 올라가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차단다, 차뜨다, 차받치다'와 같은 단어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한나절/반나절

'한나절'이라는 말을 '하루 종일'의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한나절'은 하루 낮의 반을 뜻하는 말로 '반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나절'이란 말도 많이 쓰이는데 간혹 '한나절'과 '반나절'을 같은 뜻으로 알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나절'은 한나절의 '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한나절'은 '반나절'의 배가 되는 동안을 말합니다.

이 두 표현에 공통적으로 쓰인 '나절'이라는 말은 하루 낮의 절반쯤 되는 동안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낮의 어느 무렵이나 동안'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아침나절'이라든가 '저녁나절'이라는 표현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나절'은 아침밥을 먹은 뒤 한나절을 말하고, '저녁나절'은 저녁 무렵의 한동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 낱말맞추기 |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 5월호 문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4월호 정답

	서		개	나	리		미	역
거	울			들		부	인	
머			사	이	비			
리	본		격		밀	가	루	
		광				랑		
복	지	부	동			이	무	기
승			굴	착	기			차
아	버	지				가	면	
	섯		옹	알	이			

오른쪽방향열쇠

- 강원도의 북부에 있는 명산. 경치가 뛰어나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 등으로 나뉜다.
- 운동할 때 신는 신. 또는 평상시에 활동하기 편하게 신는 신
- 눈물샘에서 나오는 분비물. 늘 조금씩 나와서 눈을 축이는데, 자극이나 감동을 받으면 더 많이 나온다.
-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만든 반찬감. 또는 그것을 굽거나 찌서 만든 반찬
- 지구 표면의 상태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 이를 약속된 기호로 평면에 나타낸 그림
-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수단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 또는 그런 행위
- 무엇이 불에 탈 때에 생겨나는 흐릿한 기체나 기운
- 고향을 그리워하며 생각함.
- 비람이나 경축, 환호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외치는 소리
- 각 궁궐이나 성의 문을 지키던 무과 벼슬
-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사정을 알리는 말이나 글
- 피부나 점막, 기타의 조직을 의료 기계를 사용해 자르거나 찢고 조각을 가해 병을 고치는 일
- 수영을 잘하는 사람을 동물에 비유해 부르는 말. 물개과의 바다짐승
- 병으로 죽음. 또는 그런 일
- 푹어지거나 파낸 자리
- 꼭다 남은 눈
- 양치식물 고사리과의 여러해살이풀. 높이는 1미터 정도이며, 이른 봄에 싹이 뿌리줄기에서 돋아나는데 꼭대기가 꼬불꼬불하게 말리고 흰 솜 같은 털로 온통 덮여 있다. 어린잎은 식용하고 뿌리줄기는 녹말을 만든다.
- 사람의 식량이 되는 쌀, 보리, 콩, 조, 기장, 수수, 밀, 옥수수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아래쪽방향열쇠

- 그해 겨울에 처음으로 내리는 눈
- 개의 새끼
- 물건 등을 옮겨 나름
- 신라 때 화랑이 지켜야 했던 도리. 유·불·선의 삼교, 삼덕, 오계를 신조로 했다.
- 어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
- 파하거나 쫓겨어 달아남
- 웬만한 일에는 겁내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대담한 성질. 또는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
-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시름
- 손이나 얼굴을 씻음
- 동물의 반대말
- 술을 담은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눈 내리는 깊은 겨울의 심한 추위
- 올챙이가 자란 것으로 뒷발이 길고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다.
- 어머니를 그리는 노래
- 사람의 죽음을 알림. 또는 그런 글

숲이 가장 아름다운 서해의 보석 굴업도 자연 상태 그대로인 야생동물의 낙원



인 천에서 남서쪽으로 90km 떨어져 있는 굴업도(掘業島)는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에 딸린 면적 1.71km², 해안선 길이 12~13km의 작은 섬이다.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덕적도까지 1시간 남짓 간 후 항로에 따라 홀수일에는 1시간, 짝수일에는 2시간 정도 더 가야 닿는다. 불편한 교통편 때문에 관광객은 한 해 1만 명을 넘지 않는다.

굴업도는 토끼섬이 딸린 큰 섬과 연평산이 있는 작은 섬을 목기미 해변이 있고 있는 모습이다. 목기미 해변을 사이에 두고

줄다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큰 섬과 작은 섬이 이어져 있다. 큰 섬에 있는 선착장에서 작은 섬을 향해 가다 보면 먼저 건조하고 매마른 사막 같은 풍경을 볼 수 있다. 모래언덕 여기저기에 앙상하게 마른 나무들이 서 있고, 바삭 마른 모래 바닥에는 바람이 지난 흔적이 물결처럼 예쁜 무늬를 그리고 있다.

모래언덕을 지나면 풀밭이 나온다. 봄이면 초록빛 새싹과 양증맞은 야생화가 모습을 드러내는 풀밭에서 사슴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풀밭 너머에는 관목이 우거진 작은 숲이 있고, 숲을 지나 언덕 2개를 넘으면 연평산(128m) 정상이다.

정상에 서면 사람이 엎드려 일하는 모습이라 하여 '굴업'이란 이름이 붙었다는 섬의 전경을 볼 수 있다. 연평산 아래 북서쪽의 가파른 절벽이 병풍처럼 두른 해안에는 거대한 바위가 오랜 세월 파도에 맞아 빗어진 코끼리바위가 우뚝 서 있다.

굴업도 주민들이 모여 사는 큰 섬의 '큰 마을' 앞으로는 시원스레 해변이 펼쳐져 있다. 모래가 너무 고와서 발자국도 남지 않는다는 해변이다. 해변 왼쪽 끝으로는 문화재청이 "국내 어디서도 보기 힘든 해안 지형의 백미"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아름다운 토끼섬이 자리하고 있다.

썰물 때만 들어갈 수 있는 토끼섬은 한때 주민들이 토끼를 풀어놓고 키웠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토끼섬에는 바닷물의 침식작용으로 인해 해안의 절벽 아래부분에 좁고 깊게 형성된 침



1. 목기미 해변이 큰 섬과 작은 섬을 잇고 있다. 2. 고운 모래가 깔린 굴업도의 백사장 3. 개머리 능선의 텐트와 일몰 4. 해안의 절벽 아래부분에 형성된 침식지형 5. 이방인을 반기는 사슴 무리 6. 개머리 능선 7. 바다에서 걸어 나온 듯한 모습의 코끼리바위 8. 낮은 집들이 들어서 있는 큰 마을의 모습

식지형을 볼 수 있다. 화산재와 암석 조각이 굳어 생긴 높이 약 20m의 절벽을 3~5m 깊이로 침식한 지형이 100m 이상 펼쳐져 있다.

큰 섬 끝 쪽에 있는 개머리 능선은 오래전 소떼를 방목하던 목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슴과 염소 100여 마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곳이 됐다. 능선을 거닐다 보면 초원 멀리서 인기척에 놀란 사슴들이 한참을 빠르게 뛰어가다 멈춰 서서 맑은 눈망울로 쳐다보는 것을 볼 수 있다.

굴업도는 섬 전체가 야생동물의 낙원이다. 토끼섬에는 전 세계에 1만 마리밖에 없다는 검은머리물떼새의 번식지가 있다. 개머리 능선 초원에는 천연기념물인 먹구렁이, 황구렁이 외에 송골매, 애기빨소똥구리, 희귀종인 왕은점표범나비 등이 살고 있다. 아열대성과 아한대성 식물이 공존하는 특이한 지역이기도 하다. 한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역새가 어른 키 높이로 자라 숲을 이룰 정도로 우거진다.

개머리 능선은 캠핑 명소로도 알려져 있다. 거북이가 바다로 고개를 내민 듯한 모양을 한 능선 끝의 언덕에서 바라보는 서쪽 바다의 일몰이 일품이다. 밤이 되면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리는 언덕 위로 보석 같은 별빛이 쏟아져 내린다.

굴업도는 잘 보존된 생태계와 아름다운 자연 덕분에 지난 2009년 산림청과 생명의 숲이 주최한 '제10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대상, 같은 해 11월에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최한 '2009 이곳만은 꼭 지키자!' 에서 환경부 장관상에 뽑히기도 했다.



1900년대 초반 굴업도는 민어 파시(波市)가 열렸던 곳이다. 민어 어장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당시 거주민은 500명이나 되고 어선도 수백 척이 모였다고 한다. 그러나 1923년 한반도를 덮친 태풍은 이곳 가옥과 어선을 산산조각 냈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어장의 중심지는 굴업도에서 덕적도로 옮겨졌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둘 섬을 떠나갔다. 두 마을이 사라지고 큰 마을 하나만 남았다. 큰 마을에는 현재 9가구, 20여 명이 남아 민박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민박에서 차려내는 밥상을 보면 음식 대부분이 섬에서 나온 것들이다. 텃밭에서 배추, 무, 땅콩 같은 농작물을 기르고 취나물, 기름나물, 산야초, 원추리, 쑥 등은 섬 이곳저곳에서 채취한다. 또 굴과 고등은 해안에 치천이다. 김도 자연산을 직접 거둬들여 말린 뒤 밥상에 올린다. 무공해 농작물과 나물, 해산물로 차려진 밥상은 몸에도 좋지만 맛도 일품이어서 굴업도를 찾는 이들을 즐겁게 한다. 齣

201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 모집

재외동포재단은 차세대 지도자 역량결집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해 한인사회 권익신장과 발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들을 모국에 초청하는 세계한인차세대대회(The 17th Future Leaders' Conference)를 개최합니다.

조규형 이사장은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들은 대한민국이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인재”라며 “이들이 대회에 참가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간다면 개인의 발전은 물론 창조경제 활성화, 글로벌 코리아 실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대회 일정 및 개요

재외동포재단은 오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4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7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 대회는 세계 각국 동포 차세대 지도자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차세대 인재들을 모국에 초청하는 행사입니다.

1998년부터 치러지는 연례행사로, 지금까지 연아 마틴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 멜리사 리 뉴질랜드 국회의원, 준 최 미국 뉴저지 에디슨 시장, 리 아서 미 연방 내무부 차관보 등 30여 개국의 주류사회에서 활약하는 차세대 854명이 참가했습니다.

재단은 올해 해외 참가자 120여 명과 국내 체류 중인 동포 차세대 30여 명을 대회에 참가시켜 네트워킹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참가자들은 행사 기간 국내외 주요 인사의 강연을 듣고 분야별 포럼을 열거나 정부 기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국내외 차세대 간 교류 활동과 모국문화 체험 기회도 마련합니다.

■ 참가 자격 및 신청

25~45세의 영주권·시민권자 또는 거주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동포 가운데 재외동포 교류 촉진과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참가 자격을 줍니다. 정치·경제·법률·언론·문화·예술·국제기구 종사자, 자원·에너지·첨단산업·환경 분야 전문가, 지역별 우수 차세대 단체 임원 또는 실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면 신청 동기, 참가 의지, 거주국 활동 내용, 해당 분야 업적 등을 담은 참가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오는 5월 23일까지 거주지 관할 공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동포사회 생생한 소식을 기다립니다

한인 사회의 다양한 소식(한인회, 상공회, 한글 학교 행사 등)과 이민의 애환이나 널리 알리고픈 미담 등을 보내주시면 게재해서 고국과 전 세계 한인 사회에 전하겠습니다. 자랑할 만한 소식, 미담, 성공적인 행사 등 이모저모를 전해주세요.

▶ 원고 보낼 곳 : wakar@yna.co.kr
shaorong@okf.or.kr
(원고 A4 한 장 이내)

※ 독자 후기

기대하던 파견광부 소식에 감사합니다. 저는 1967년 7월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1969년 7월 귀국해 1970년 6월에 독일로 광부과 견을 나갔습니다.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를 거쳐서 현재는 주한 세르비아대사관에서 근무 중입니다.

저는 베트남전에 참여했던 인연으로 매년 아내와 함께 1~2회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한국인과 베트남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라이파이한' 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에게도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파견광부 소식을 전해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민정배 | 주한 세르비아대사관

함께 해요

치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날 까지



국가의 치매관리 사업, 자세히 살펴보세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www.nid.or.kr



나라에서 치매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세요? 국가치매관리 사업의 베이스캠프,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세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치매현황, 실종 치매노인 지원사업, 치매극복 캠페인, 치매 전문교육, 파트너 광장 등의 메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치매 관리 사업을 알아보고 참여할 수 있는 치매 관련 캠페인에 대한 정보도 얻으세요.

치매, 무엇이든 찾아보세요. 치매정보 365 www.edementia.or.kr



치매에 대한 전문 자료가 필요하세요?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싶으세요? 치매정보 365는 국내외 최신 치매 정보를 전달 하는 홈페이지로 치매 대백과, 사랑방, 상담실, 자료실 등의 메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실에 상담글을 올리시면 무료로 전문가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언제 어디서든 치매정보 365에 접속해 보세요.

치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99세까지 88하게! 치매에 대해 궁금하세요? 치매 어르신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세요? 치매상담콜센터가 함께 합니다.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은 치매에 관한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니, 언제 어디서나 국번 없이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전화주세요.

치매에 대해 궁금하세요? 치매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세요?

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

2013년 12월 1일부터
24시간 365일 늘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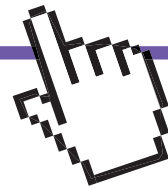
재외동포의 모든것,

KOREAN  NET 으로 통합합니다.



재외동포 전문포털 코리아넷

www.korean.net



재외동포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한국 역사
한국 문화 콘텐츠



주요 재외동포
인물·단체 정보



재외동포단체 홈페이지
제작·지원 서비스



온라인 초청
지원사업 신청



재외동포단체
SNS 서비스



비즈니스 교류
및 정보 제공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 콘텐츠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